

## “바울의 구원론, 칭의와 성화가 서로 긴밀히 연관”

윤철호 교수, 한국신학아카데미

2025 가을학기 제2차 학술세미나서 발제

한국신학아카데미(원장 김균진 박사)가 최근 서울 안동동 세미나실에서 ‘구약과 신약 구원론의 통합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2025년 가을학기 제2차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선 원장 김균진 박사(연세 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윤철호 교수(장신 대 명예교수, 조직신학)의 발제, 오성종 교수(전 칼빈대 교수, 신약학)가 논찬했다.

◆바울의 구원론과 다양한 신학적 관점

‘바울의 구원론 이해의 최근 동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윤철호 교수는 “바울의 구원론에 대한 이해는 영속적인 신학적 논쟁점들 가운데 하나다. 개신교에서는 일반적으로 바울의 구원론의 중심 주제가 ‘믿음에 의한 칭의’ 즉 ‘이신칭의’ 교리에 있다고 여겨왔다”며 “루터 전통의 칭의론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죄인에 의를 은혜의 선물로 주시며, 우리는 이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칭의는 죄인에게 의를 전가해 줌으로써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법정적 개념으로 간주된다”고 했다.

이어 “인간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의롭다고 선언된다”며 “여기서 믿음은 율법의 행위와 대립하며, 따라서 칭의는 그 어떤 인간의 협력적 행위도 배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신교와 달리, 가톨릭 신학자들은 칭의를 바울의 중심 주제로 간주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실존을 묘사하는 여러 은유 가운데 하나로 본다”며 “이들은 의의 전가로서의 법정적 칭의 개념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자들이 실제로 의롭게 됨으로써 자야가 변화된다고 본다. 또한 이들은 칭의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은 인정하지만, 칭의가 인간의 협력적 행위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오늘날의 신학의 특징은 신학자들이 자신이 속해 있는 전통(개신교, 가톨릭)에 구애받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바울의 구원론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보여준다는 데 있다”고 했다.

◆‘참여’의 개념을 통한 새로운 이해

윤 교수는 미국 신약학자 마이클 고먼(Michael J. Gorman, 1955~)의 ‘참여’ 개념

을 소개하며, 바울의 구원론을 설명했다. 그는 “고먼은 구원론을 그리스도와의 참여로 이해하며, 구원은 단순히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자가와 부활, 현재의 생명에 참여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고 했다.

이어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며 ‘즉,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참여하는 신실한 믿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칭의와 성화가 분리될 수 있지만 동일시될 수도 없다. 바울의 구원론에서는 칭의와 성화가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며, 신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부여받고 의

롭다고 여겨진다고 말했다”며 “그리고 신자는 단순히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실제적인 변화를 경험하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성화의 과정을 거친다”고 했다.

더불어 “바울의 구원론의 특징은 칭의와 성화를 동일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며 “신자의 삶을 위한 성령의 도우심을 강조하는 데 있다. 성령은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가져온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하신다”고 했다.

◆십자가와 부활, 구원의 핵심

끝으로 그는 “바울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자 부활의 복음이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부활이 없는 십자가도 없다.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란 말은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최종적 운명이 아닌 것처럼, 십자가가 그리스도인의 최후 운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한다”며 “주의 미지막 약속의 말씀은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하는데 있다”고 전했다.

논찬에서 오성종 교수는 “바울의 구원론을 이신칭의 교리로만 한정지울 수 없다”며 “참여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한 바울 구원론은 기존의 전통적 해석에 대한 성찰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전통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려는 태도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신학을 해석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했다.

장지동 기자



한국신학아카데미 학술세미나 참석자 기념 사진. ©장지동 기자



윤철호 교수. ©장지동 기자



구약과 신약 구원관의 통합을 향하여  
사회: 김균진 한국신학아카데미 원장 (한국신학아카데미 세미나실)

## “성지순례, 다양한 체험 통해 이스라엘인 사랑 느낄 수 있을 것”

### [인터뷰] 이스라엘정부관광부 노가 쉐르 그레코 종교국장



이스라엘관광청이 3년 만에 2025 목회자를 위한 이스라엘 성지세미나를 개최하며, 세미나 강연자로 나선 이스라엘 정부 관광부의 노가 쉐르 그레코 종교국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인터뷰에서는 이스라엘과 한국 교회의 교류와 협력, 성지 순례의 안전 대책, 그리고 한국 기독교인들의 영적 연대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가 오갔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Q. 이스라엘과 한국 교회의 교류와 협력에 대해 기대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은 한국 교회와의 교류와 협력을 신앙적인 연대와 문화 교류를 통해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교육 프로그램, 문화 행사, 성지 세미나 등을 통해 양국 간의 이해와 친선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신앙의 공유와 영적 성

장을 물론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이스라엘 정부가 성지 순례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성지 순례객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최신 감시 및 보안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여 이동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으며,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같은 위생 관리 프로토콜도 새롭게 마련하여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지 발굴 작업이 완료된 수많은 국립공원과 성지 순례지에 대한 안내 시스템도 다국어로 제공되고 있으며, 관광객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설 보수와 협정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성지 순례 사이트와 기도회를

진할 계획입니다. 성지 탐방 투어나 글로벌 기독교 친선 컨벤션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 간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Q. 이스라엘 방문 시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이스라엘에 대한 해외 안전 경보는 올해 6월 17일부터 3~4단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험 지역에 대한 접근은 제한되며, 이스라엘 관광부는 성지 순례 지역을 한국어로 제공하고, 여행객들이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 구역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을 통해 여행객들이 안전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Q. 한국 교회와 관광객들에게 기대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한국 교회와의 교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로, 이스라엘 관광부는 한

국 교회와 협력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Q. 2030 젊은 세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나요?

“이스라엘 정부는 젊은 세대와 개인 신앙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영상 체험 여행, 청년 중심의 워크숍,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성지 탐방 등이 그 예입니다. 또한, 고대 성지 유적 발굴 체험과 같은 소규모 그룹의 체험 여행도 가능하며,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2030 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Q. 예루살렘 이스라엘 박물관에서 공개

될 예정인 원본 이사야서 두루마리 원본에 대해 알려주세요.

“이스라엘 관광청은 내년 1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박물관에서 사해사본 가운데 가장 보존 상태가 좋은 이사야서 두루마리 원본을 일반에 처음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특별전은 박물관 개관 60주년을 기념하여 진행되며, 약 4개월 동안 관람이 가능할 것입니다.”

Q.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꿈꾸는 크리스천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많은 성지 순례객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아외에서 진행되는 트레킹이나 발굴 현장 참여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지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깊이 있는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장지동 기자

## 액상 항균/항바이러스/항곰팡이 소재 전문기업 트윈위즈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구단지 1길 16, 4층 ☎ 055-286-9004



※ 제품의 색상, 외관 및 특성 변화 없이 항균/항바이러스/항곰팡이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소재